

인형매체 역할놀이 프로그램에서 나타나는 4세 시설보호유아의 정서인식 및 표현행동 탐색*

A Study on Emotional Recognition and Expressive Behavior of Children Aged Four
in Institutional Care Through a Role Play Program Using Dolls*

양심영(Sim-Young Yang)¹⁾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how children aged four, in institutional care, perceive and express basic emotions, such as happiness, sadness, anger, surprise, through a role play program using dolls. This study selected two children who were both aged four years old and are currently in child institutional care. The children were observed during six role play trials using dolls and were questioned after the trials. The results were : 1) The children aged four in institutional care best perceived and expressed the emotion of happiness. 2) The children aged four in institutional care were able to positively change their feelings of sadness and expressive behavior through the intimate relationships they formed with the researcher. 3) The children aged four in institutional care expressed the emotion of anger throughout the entire role play using dolls and were positively changed the instructions and coaching given by the researcher. 4) The children aged four in institutional care had the most difficulty in expressing the emotion of surprise. The results of this study could be used as basic data for creating a program intended to help children aged four in institutional care develop their emotions.

Key Words : 시설보호유아(children in institutional care), 정서인식(emotional recognition), 기본정서(basic emotions), 인형(dolls).

* 본 논문은 2010학년도 숭의여자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¹⁾ 숭의여자대학교 가족복지과 조교수

Corresponding Author : Sim-Young Yang, Family Welfare, Soongeui Women's College, 8-3, Yejangdong, Junggu, Seoul 100-751, Korea
E-mail : yangsy@sewc.ac.kr

I. 서 론

유아기부터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바르게 인식하고, 감정을 조절하여 다른 사람들과 생각과 감정을 나누며 협력할 수 있는 정서적 능력을 계발하는 것은 21세기 정보화 사회에서 성공적인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 변인이 될 수 있다(권덕수, 1997; 문용린, 1996; Goleman, 1995; Mayer & Salovey, 1990). 더구나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이나 가족해체, 아동 학대, 한부모 가족의 증가 등 아동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울타리가 되었던 가정의 기능이 약화되어 가면서 급속도로 변화하는 사회에 대한 대처능력을 키우지 못한 유아들의 정서적 스트레스가 불안증, 우울증, 부적응 등의 증상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유아정서교육의 필요성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이영덕, 1995; 황의명·박찬옥, 1999).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대리가정의 한 형태인 시설보호에서 아동의 정서적 능력을 계발하도록 돕는 사회적 지지가 필요함을 역설한다. 즉, 시설보호 아동은 일반아동보다 위축, 불안·우울, 사회적 미성숙 등 다수의 항목에서 문제를 보이며, 자이통제기술과 협동기술 등이 부족하며, 스트레스 대처와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성애·박성연, 2009; 성미영, 2006; 한지현·이진숙, 2007; 홍수현·김경희, 2005). 따라서 심리사회적으로 적응적이고 건전한 사회인 육성의 시설보호의 목적과(보건복지부, 2003) 시설보호 유아의 바람직한 성장과 발달을 고려할 때,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 감정이 타인에게 끼칠 영향을 고려하여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고 다른 사람들과 협력할 수 있는 정서적 경험을 제공하는 사회적 지지가 시설보호 유아에게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지지는 생의 초기인 유

아기부터 아동의 발달에 기초하여 제공되어야 하는데, 정서적 능력 계발은 자신과 타인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정서, 특히 기본정서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한다(Goleman, 1995). 기본정서는 인종이나 문화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인식되는 정서로, 다른 정서와 비교하여 자주 발생되고, 다른 정서와 결합되어 더욱 발달된 정서를 이끌어 내기 때문에(Ortony et al., 1988) 유아기 정서교육에서 초점이 되는 매우 중요한 정서이다. 유아가 인식할 수 있는 기본 정서는 기쁨, 슬픔, 화남, 놀람의 4가지 정서이며, 일반적으로 유아는 얼굴표정과 상황단서를 통해 정서를 인식하고 추론하며(김인숙, 1992), 연령에 따라 정서인식에 많은 차이를 보인다(이옥임, 1997).

정서인식은 시설보호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일반유아는 기쁨과 같은 긍정적 정서를 가장 쉽게 인식하며, 슬픔과 화남과 같은 부정적 정서에 대한 이해가 가장 부족하다(황의명·박찬옥, 1999; Borke, 1971). 이에 반해 시설보호 유아가 일반유아에 비해 긍정적 정서 인식수준은 더 낮으며, 부정적 정서 인식수준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성미영, 2006). 따라서 시설보호 유아에 관한 연구는 부정적 정서에 초점을 맞추는 선행연구의 틀에서 벗어나(문지윤·임정하, 2011) 긍정적·부정적 정서를 통합적으로 포함하는 기본정서인식 측면에서 유아의 정서를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시설보호 아동의 정서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살펴보면, 주로 자기보고가 가능한 초등 학교 고학년 이상의 연령을 대상으로 환경적 제한과 결핍으로 인한 부정적인 측면은 알리는 연구가 대부분이다(김규희, 2000; 문지윤·임정하, 2010, 박미경, 2006; 한지현·이진숙, 2007; 홍수현·김경희, 2005). 이와 비교하여 취약한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시설보호 유아의 연구는 소수

에 불과하며, 정서를 세분화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보육사나 조사자 등의 성인의 보고와 평가에만 의존한 측정방법을 인해 유아의 행동특성을 판단하는데 객관성이 결여되는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권세은, 2002; 김성애·박성연, 2009; 성미영, 2006). 또한 시설보호 아동 가운데 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는 거의 발견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정서적 위기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시설보호 유아를 돕기 위해 이들의 정서적 발달에 기초한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되며, 정서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은 유아의 정서를 어떻게 이해하고 인식하는지 파악하는 연구를 기초로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4세 시설보호유아의 정서발달을 지원하는 개입프로그램 개발 탐색에 목적을 두며, 선행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한 다음의 3가지에 초점을 두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주로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의 시설보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선행연구들을 보완하여,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고 이를 적절하게 표현하려는 시도가 증가하는 만 4세 시설보호 유아를 대상으로 하였다. 일반적으로 만 4세가 되면 유아들은 자아개념 획득과 인지발달, 정서표현 어휘 발달 등을 통해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고 있는 정서를 이해하고 이를 적절하게 표현하며 정서를 더 잘 조절할 수 있게 된다(Berk, 2008). 이를 통해 생의 초기인 유아기부터 바람직한 정서적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성인의 평가에 의존하여 시설보호 유아의 정서를 측정하려했던 선행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하여, 자신의 생각과 경험, 느낌을 말로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보이는 유아들에게 유용한 인형을 매체로 한 역할놀이를 활용하여 보다 객

관적으로 유아들의 모습을 관찰하였다. 인형을 매체로 한 역할놀이는 동일시가 용이하며 현실적으로 상처를 줄 수 없다는 비인간적 특성 때문에 유아가 자신의 정서를 아무 부담 없이 표현할 수 있는 이점으로 인해 시설보호 유아를 비롯한 정서적 문제를 보이는 유아들에게 효과적인 심리요법으로 활용되고 있다(이규섭, 1994). 그리고 박정선(2007)은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역할놀이 프로그램이 시설아동의 우울, 공격성, 주의산만행동에 효과적임을 밝히면서 시설아동의 치료, 정서교육을 위한 심리적 지원체제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역할놀이에서 발도르프 인형을 활용하였는데, 발도르프 인형은 인형의 얼굴을 상세하게 만들지 않고 가장 단순한 형태로 만들어 유아의 의지대로 감정을 느끼고 다른 사람과 함께 감정을 만들어나가게 도와줄 수 있다(한국발도르프인형연구회, 2008). 또한 솜과 자연재료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유아들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주며 긍정적인 자아개념 형성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시설보호 유아의 정서발달에 도움을 주는 매체라 할 수 있다.

셋째, 정서를 세분화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선행연구를 보완하여, 기본정서를 기쁨, 슬픔, 화남, 놀람의 4가지로 구분하여 각각의 기본정서를 4세 시설보호 유아들이 어떻게 인식하는지 밝히는데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긍정적·부정적 정서를 포함한 기본정서인식이라는 보다 유아기 정서발달에 기초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을 요약하면 본 연구는 시설보호 유아의 정서적 능력을 계발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기초연구로, 정서인식과 표현이 늘어나는 만 4세 시설보호 유아의 인형을 매체로 한 역할

놀이에서 기쁨, 슬픔, 화남, 놀람의 기본정서를 어떻게 인식하고 표현하는지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인형매체 역할놀이 프로그램을 통해 나타난 4세 시설보호유아 의 ‘기쁨’ 정서 인식 및 표현행동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연구문제 2> 인형매체 역할놀이 프로그램을 통해 나타난 4세 시설보호유아 의 ‘슬픔’ 정서 인식 및 표현행동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연구문제 3> 인형매체 역할놀이 프로그램을 통해 나타난 4세 시설보호유아 의 ‘화’ 정서 인식 및 표현행동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연구문제 4> 인형매체 역할놀이 프로그램을 통해 나타난 4세 시설보호유아 의 ‘놀람’ 정서 인식 및 표현행동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II. 연구방법

인형을 매체로 한 역할놀이에서 나타난 4세 시설보호 유아의 기본정서를 탐색하기 위해서 사례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사례연구는 연구참여자가 처한 맥락 속에서 세부적이고 심층적인 자료수집을 통해 하나의 ‘경계지어진 체계’나 사례를 탐색하는 질적 연구방법의 하나로(Creswell, 1998), 본 연구에서는 사례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아동생활양육시설’이라는 경계지어진 체계에서 생활하는 4세 유아들이 인형을 매체로 한 역할놀이에서 어떻게 기쁨, 슬픔, 화남, 놀람의 기본정서를 인식하고 표현하는지 탐색하였다.

1.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서울에 소재한 A생활양육시설에 살고 있는 4세 남녀 유아 2명이다. 본 연구참여자로서 만 4세 남아 민수와 여아 지영¹⁾은 다음의 배경 및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1) 민수

2006년 10월생으로 연구당시 4년 9개월 이었다. 부모의 오랜 방임으로 2011년 1월에 입소하게 되었으며 A아동생활양육시설에 입소한지 약 7개월 정도 되었다. 첫 만남 당시 색깔, 숫자, 문자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으며, 인형을 소개해주자마자 머리카락을 잡고 돌리고 집어던지는 등의 공격적 행동을 보였다. 이러한 민수의 공격적 성향은 보육사와의 면담에서 잘 나타나었다.

민수는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친구들을 때리고, 할퀴고, 물어요. 어제는 바깥에 못나가게 한다고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해, 나는 지금 밖에 나가 놀아야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해”라며 할머니들이 신세 한탄하듯이 가슴을 치며 울부짖어요. 선생님들이 이를 무시하면 따라 다니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며 자해를 해요(실제로 민수의 왼쪽 이마에 시퍼렇게 멍이 든 흔적이 있었고, 그 아래로 찰과상 흔적이 딱지가 붙어 있었다).

(2011. 7. 5, 보육사의 요청에 의한 면담)

2) 지영

2006년 12월생으로 연구당시 4년 7개월 이었다. 부모의 장애로 인해 양육이 어려워 2011년 1월에 입소하게 되었으며 민수와 같이 A아동생활양육시설에 입소한지 약 7개월 정도 되었다. 첫 만남 당시 색깔이나 숫자는 인지하지 못했지만, 자신의 이름은 쓸 수 있었으며, 소개해 준 인

1) 연구의 윤리적 문제로 연구 참여자의 이름은 가명 처리하였다.

형을 품에 안거나 쓰다듬어 주며 정서적인 행동을 보였다. 이러한 지영이의 성격은 보육사와의 면담에서 잘 나타나 있다.

지영이는 사랑스러운 아이예요. 언제나 말을 잘 듣고 착해요. 친구들도 잘 도와주고요. 가끔 뺑강도 부리고 고집을 피우고 울기도 하지만...

(2011. 7. 5, 보육사의 요청에 의한 면담)

2. 연구절차

1) 인형을 매체로 한 역할놀이의 구성

시설보호 유아에게서 기쁨, 슬픔, 화남, 놀람의 기본정서를 유발하는 역할놀이의 주제는 선

행연구를 바탕으로 구성하였다(황의명·박찬옥, 1999). 먼저 이론적 경험적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일반유아에게서 특정정서를 유발하는 다양한 정서상황을 정리한 황의명과 박찬옥(1999, pp.87- 88)의 연구에서 발췌하여 역할놀이의 주제를 목록화하였다. 그런데 이는 일반 유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본 연구의 대상인 시설보호 유아의 기본정서를 유발하는 알맞은 상황을 도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연구참여자를 담당하고 있는 아동시설 사회복지사에게 역할놀이목록을 보여주고 가장 적합한 상황을 선택하도록 하여 연구참여 유아들에게 가장 적절한 주제의 역할놀이를 구성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Table 1> Content of Program for Role Play Using Dolls

Trial	Title	Content
1st	Saying Hello to a Dol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aying hello to the researcher • Introducing and familiarizing with a doll • Naming the doll
2nd	Congratulating a Doll's Birthda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aying hello to the doll • Informing that it's the doll's birthday, and choosing the card that best expresses the emotion if it were his or her own birthday • Playing with other toys to congratulate the doll's birthday
3rd	Playing Hospit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aying hello to the doll • Notifying that the doll is sick and went to a hospital, and choosing the card that best expresses the emotion if he or she went to the hospital for being sick • Playing hospital with the doll and other toys
4th	To the Age of Dinosau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aying hello to the doll • Telling the doll is in the world of dinosaurs, and choosing the card that best expresses the emotion if a dinosaur suddenly appeared from behind • Playing with dinosaur toys and the doll
5th	Dressing the Dol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aying hello to the doll • Introducing 'dressing the doll' activity, and choosing the card that best expresses the emotion if a friend used an object alone or took an object without permission • After the dressing activity, playing with the doll giving it gifts
6th	Remembering the Fun Pla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aying hello to the doll • Remember playing with the doll and saying which was the most memorable • Looking at the cards and sharing which emotions apply to which activities

<표 1>과 같다.

2) 접근과 관계형성

연구자와 친분이 있는 문지기(gatekeepers)를 통해 A아동생활양육시설을 소개받고 원장과 사무국장에게 연구의 목적과 자료수집 절차, 연구 참여자의 보호, 연구 윤리 등을 설명하고 연구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 그런 다음 연구에 적합한 만 4세 유아 두 명을 소개받고 그들의 입소배경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 그리고 첫1회 관찰 때 연구참여자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연구의 목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였다. 또한 연구자와 서로의 이름과 나이, 좋아하는 것 등에 관련된 정보를 나누며 관계를 형성하였으며, 인형을 소개하고 인형 이름을 지어보는 등의 활동을 통해 인형과의 관계 형성도 도왔다.

3) 관찰 및 면접

역할놀이 시작 시 연구자는 놀이의 상황과 놀이의 역할을 유아들이 이해하고 놀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참여관찰을 하였고, 놀이가 어느 정도 무르익게 되면 적극적으로 참여를 멈추었다. 즉 연구자는 유아들이 놀이에 익숙해짐에 따라 연구가 진행될수록 소극적으로 관여하는 비참여적 관찰의 비중이 점점 늘어났다.

그리고 각 놀이시마다 정서인식에 관해 유아와 개별 면접하였고, 필요한 경우 연구자와 보육사의 요청에 의한 면접이 이루어졌다.

3.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11년 6월 28일부터 7월 14일까지 3주 동안 한 주에 두 번씩 총 6회에 걸쳐 이루어졌다. 관찰시간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에서 11시까지 약 1시간동안 이

루어졌으며, 관찰시간이 오전 간식을 먹는 시간과 겹쳐 놀이 후 약 20분 동안 준비해간 간식을 나눠먹었다. 관찰장소는 A생활양육시설의 놀이실에서 이루어졌다. 유아들의 놀이장면은 모두 디지털 캠코더로 녹화하고 전사하여 컴퓨터 파일로 저장하였으며, 활동이 끝나며 바로 연구자 현장노트를 완성하였다.

4. 자료분석

자료는 수집과 동시에 기록·저장하였으며, 사례연구 방법에 따라 나선형적 자료 분석의 과정을 되풀이하여 분석하였다(Creswell, 1998, p.180). 1단계의 전사된 자료 읽고 메모하기, 2단계의 기술·분류·해석하기, 3단계의 시각화하고 보고하기의 전 단계를 나선형적으로 순환하며 자료를 분석하였다.

Ⅲ 결과분석

본 연구에서는 인형매체 역할놀이 프로그램의 적용을 통하여 4세 시설유아들의 기본정서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살펴보는 것을 연구문제로 설정하였다. 4세 시설유아들은 프로그램의 진행에 따라 정서 및 표현행동의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유아들의 에피소드에 나타난 정서인식 및 표현행동들의 구체적인 변화과정은 다음과 같다.

1. 4세 시설보호유아들의 '기쁨' 정서인식 및 표현행동의 변화과정

4세 시설보호유아들의 기쁨 정서인식 및 표현행동에서의 변화는 주로 인형과 연구자에 관련

하여 나타났으며, 인형매체 역할놀이 중 기쁨의 정서가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다.

1) 이름 없는 인형에서 사랑하는 애기로

<에피소드 1>

연구자 : (남자인형, 여자인형을 꺼내 유아들 앞에 놓으며 인형의 목소리로) 너희들과 함께 놀려고 선생님과 함께 왔어.

민수 : (무표정한 얼굴로 인형의 얼굴을 세계 누른다)

지영 : (민수의 행동을 보고 손을 세워 인형의 발을 자르는 시늉을 하며)자를 거야, 자를 거야.

민수 : (지영이의 행동을 모방하며) 자를 거야, 자를 거야.

민수, 지영 : (소리 내어 웃으며 인형의 다리, 손, 몸통 등을 자르는 시늉을 하며)자를 거야, 자를 거야.

연구자 : (인형의 목소리를 내며) 아야, 아파!

민수, 지영 : (멈추고 힐끗 보다가 이내 이전의 행동의 하며)다 자를 거야.

(2011. 6. 28, 1회 관찰)

<에피소드 1>에서와 같이 인형에 대한 유아들의 첫 반응은 인형의 얼굴을 손으로 세계 누르고 인형의 몸을 손으로 자르며 즐거워하는 다소 공격적인 것이었다. 이러한 인형에 대한 태도는 인형의 이름 짓기에도 이어졌다.

<에피소드 2>

연구자 : 인형을 부르기 위해 인형에게 어울리는 이름을 지어주었으면 좋겠어. 뭐 라고 지어줄까?

민수 : (인형의 발을 만지작거리며)...

지영 : (큰 소리로)인~형!

연구자 : 그냥 인형이라고 하면 좋겠다고? 그런데 우리에게 민수와 지영이라는 이름이 있듯이 인형에게도 이름이 있다면 부르기 쉬울 텐데.

민수 : (인형의 발을 만지작거리며)...

지영 : (큰 소리로)인~형!

연구자 : 그래. 그럼 오늘은 인형이라고 부르자.

(2011. 6. 28, 1회 관찰)

<에피소드 2>에서 보듯이 1회에 민수는 인형의 이름 짓기에 흥미를 보이지도 제안도 하지 않았으며, 지영은 계속하여 인형을 인형이라고 부르자고 제안하여 결국 1회에 인형의 이름을 짓지 못하였다. 이에 연구자는 인형의 이름이 없어 놀이에서 유아들이 불편함을 느끼자 2회에 유아들이 인형의 이름을 지어주기 전까지 인형의 머신이와 예뻐로 부르자고 제안하였고 이는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다 4회가 되어 인형의 이름에 변화가 생겼다.

<에피소드 3>

지영 : (인형을 안고)선생님! 나 머신이를 얘기라고 할거예요. 괜찮지요?

연구자 : 그럼 괜찮지. 그럼 이제부터 머신이를 얘기라고 부를거야?

지영 : (인형을 토닥이며)네. 얘기야~

연구자 : 혹시 민수도 예뻐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싶니?

민수 :

연구자 : 혹시 민수도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싶으면 이야기해줘!

(중 략)

민수 : (공룡놀이를 하던 중 갑자기)선생님! 나도 얘기 할래요.

연구자 : 그럼 지영이의 인형과 이름이 같은데.

민수 : 그럼 예뻐할래요.

(2011. 7. 7, 4회 관찰)

<에피소드 3>에서와 같이 지영이는 관찰 4회가 되자 자신의 마음을 담아 인형의 이름을 ‘얘기’로 바꾸었고, 민수는 연구자가 제안한 예뻐라는 이름을 계속 사용하게 되었지만 처음으로 인형의 이름에 관심을 가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인형에 대한 공격적인 태도와 이름을 짓지 못했던 처음의 행동과는 다른 변화된 모습이었다. 그리고 인형에 이름을 붙여진 이후 인형에 대한 유아들의 태도가 크게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에피소드 4>

지영 : (민수가 공룡으로 자신의 인형을 공격하자 인형을 품에 꼭 안으며)야~! 안 돼, 하지마!(민수의 공룡을 손으로 밀며) 저리가!
 민수 : (공룡을 안고 다른 쪽으로 가버린다)
 지영 : (인형을 안고 등을 토닥이며 흔들어준다)
 (중 략)
 지영 : (자신의 간식을 먹여주며) 얘기야, 밥먹어.
 민수 : (지영의 행동을 모방하여 자신의 간식을 들어 인형에게 가져가며)예빠야, 밥먹어. 맛있어.

(2011. 7. 7, 4회 관찰)

<에피소드 5>

연구자 : (웃는 얼굴표정카드를 보여주며)선생님과 함께 놀았던 놀이 중에 여기에 있는 아이처럼 웃는 얼굴이 되었던 놀이가 있었니?
 지영 : 애기와 놀았어요.
 연구자 : 민수는?
 민수 : 케이크 먹었어요.
 연구자 : 그리고?
 민수 : 예빠 생일축하했어요.
 지영 : ‘사랑하는 얘기’와 논 것이 좋았어요.

(2011. 7. 14, 6회 관찰)

<에피소드 4, 5>에서 보듯이 인형의 이름을 짓고 부르는 행동은 공격에서 막아주기, 품에 안고 토닥이기, 간식 먹여주기 등의 인형에 대한 애정표현행동을 증가시켰으며, 6회에 ‘사랑하는 얘기’와 함께 논 것이 가장 좋았다는 회상으로 이어졌다.

2) 간식을 주는 선생님에서 또 만나고 싶은 선생님이로

<에피소드 6>

민수 : (연구자를 보자마자)오늘 뭐 갖고 왔어요?
 연구자 : (반갑게 웃으며) 민수, 안녕하세요?
 민수 : (배에 두 손을 모으고 허리 숙여 인사하며) 안녕하세요?
 연구자 : (민수의 손을 잡고 놀이장소로 걸어오며)오늘 어떤 놀이를 가지고 왔나 고 물은 거니?
 민수 : (고래를 가로저으며)어떤 음식 가지고 왔

나고...

연구자 : 오늘 선생님이 어떤 간식을 가지고 왔는지 궁금했구나!
 지영 : (놀이실로 들어오며) 선생님과 민수를 쳐다본다.
 연구자 : (민수를 안내한 후 지영에게 가며) 지영이, 안녕하세요?
 지영 : (신발을 벗으며 고래를 끄덕인다)
 (중 략)
 연구자 : 다음 놀이에서도 재미있게 놀자. 민수, 지영이 안녕히 가세요?
 지영 : (연구자와 같이 인사하며)선생님, 또 와요?
 민수 : (인사 없이 서둘러 나간다)
 *오늘 놀이 후 물놀이가 계획되어 있어 이를 매우 기다리고 있었다.

(2011. 6. 30, 2회 관찰)

<에피소드 6>을 살펴보면, 관찰1, 2회에서 민수는 연구자를 보면 제일 먼저 오늘은 어떤 간식을 가져왔는지를 질문하며 만남과 헤어짐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지영이도 민수와 별로 다르지 않았다. 처음 만남에도 낯설어하지 않았으며 매 시간 헤어질 때도 감정의 동요 없이 받아들였다. 1, 2회 관찰 시 유아들에게 연구자는 맛있는 간식을 제공해주는 사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존재였다. 이러한 연구자에 대한 감정과 감정표현은 관찰횟수가 늘어날수록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에피소드 7>

지영 : (간식을 다 먹고 애기와 예빠를 양 품에 안고 연구자 등으로 와서 업히며) 선생님!
 연구자 : (손을 뒤로 하여 지영의 등을 토닥이며) 왜요?
 지영 : 애기도 예빠도 선생님도 예빠요.
 연구자 : 정말? 선생님도 예빠요?
 지영 : 네~!
 연구자 : 우리 지영이도 예빠요.
 지영 : (인형들을 안고 연구자 앞으로 와서 안기며) 선생님 또 와야 돼요.

(2011. 7. 12, 5회 관찰)

<에피소드 8>

민수 : (놀이실에 들어오며) 선생님, 나 어제 고기 많이 먹었어요.

연구자 : (민수와 손을 잡고 맞이하며) 어제?

민수 : 네, 고기 이따만큼 먹었어요.

연구자 : 민수, 맛있겠다.

민수 : 선생님도 우리 고기 먹을 때 또 오세요.

연구자 : 선생님도 민수랑 고기 먹었으면 좋겠어?

민수 : (웃는다)

(중 략)

연구자 : 3일반 자고 또 만나서 오늘처럼 재미있게 놀자. 민수, 지영이 안녕히 가세요?

민수 : 또 오세요!

지영 : (연구자에게 와 매달리며) 꼭 와야 돼요.

연구자 : (안아주며)그래~

(2011. 7. 12, 5회 관찰)

<에피소드 7, 8>을 보면, 5회에 지영이는 연구자에게 적극적으로 좋아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과 민수도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나누고 싶다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좋아함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관찰1, 2회에 비해 연구자에 대한 표현행동이 긍정적이며 적극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3) 맛있는 것을 많이 먹는 생일날에서 행복한 생일날로

기쁨의 정서를 가장 잘 이해하고 역동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사례는 인형의 생일축하 역할놀이에서 나타났다.

<에피소드 9>

연구자 : 생일을 맞은 머신이와 예뻐의 기분이 어떨까?

지영 : (웃는 얼굴표정을 지어보이며)이렇게요.

민수 : (지영을 따라하며)이렇게요.

연구자 : (웃는 얼굴, 우는 얼굴, 화난 얼굴, 놀란 얼굴 표정카드를 보여주며)그럼 생일을 맞은 인형은 어떤 얼굴일지 선생님이 보여주는 그림에서 찾아줄 수 있겠니?

지영, 민수 : (웃는 얼굴 표정카드를 짚으며)이거요.

연구자 : 그럼, 너희도 생일날에 이런 얼굴이 되니?

지영, 민수 : (웃으며)네.

연구자 : 생일날 왜 이런 웃는 얼굴이 되니?

민수 : 딸기, 바나나, 과일을 많이 먹으니까요.

연구자 : 민수는 생일날 맛있는 과일을 많이 먹을 수 있어 웃는 얼굴이 되는구나! 또 언제 이런 얼굴이 되니?

민수 : 선물 받아요.

연구자 : 아~민호는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고 선물도 받는 생일날 웃는 얼굴이 되는구나! 지영이는 언제 이런 웃는 얼굴이 되니?

지영 : 생일잔치할 때 야구르트 케이크 먹을 때요.

연구자 : 민수와 지영이 모두 생일날 맛있는 것을 먹을 때 이런 웃는 얼굴이 되는구나!

(2011. 6. 30, 2회 관찰)

<에피소드 9>에서 보면 생일에 음식과 선물을 먹고 받는 것이 기쁜 일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특히 민호와 지영이는 생일에 생일잔치 음식에 대한 기대로 기쁨을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생일을 맞은 아이가 어떤 기분일지에 대해 말로 표현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는 6회 관찰에서 나온 <에피소드 10>을 통해 생일축하놀이가 가장 즐거웠으며 ‘좋다’, ‘행복하다’라는 언어적 표현을 하게 되는 것으로 변화하게 된다.

<에피소드 10>

연구자 : 애기와 예뻐와 놀이했던 놀이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즐거웠니?

민호, 지영 : (큰 소리로) 생일축하요.

연구자 : 너희 둘 다 같은 생각이니? 또 어떤 놀이가 즐거웠니?

지영 : (생각하다가) 애기 “생일축하합니다” 노래 불러줬잖아요.

연구자 : 그렇구나. 생일 축하할 때가 가장 즐거웠구나! 이때 인형의 기분은 어땠는지 말로 이야기해볼 수 있을까?

지영 : 좋아요.

민호 : 행복해요.

(2011. 7. 14, 6회 관찰)

2.4세 시설보호유아의 '슬픔' 정서 인식 및 표현행동의 변화과정

4세 시설보호유아들의 슬픔 정서인식 및 표현 행동에서의 변화는 주로 인형매체 역할놀이 중 병원놀이에서 인형과 관련하여 나타났으며, 관찰이 거듭될수록 연구자와 헤어짐에 슬퍼하는 정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1) 찌르고 싶은 인형에서 보호해주고 싶은 인형으로

<에피소드 11>

연구자 : 머신이와 예뻐가 열이나고 배가 아파 병원에 왔어요. 민수, 지영 선생님 도와 주세요.

민수 : (예뻐의 치마를 위로 올리며 놀이용 가위와 핀셋을 집어 인형의 배를 찌르고 누르며) 꼬추가 아파요. 꼬추를 치료해야 해요.
지영 : (민수를 따라 머신이의 바지위로 놀이용 주사기로 인형의 배를 세게 누르며) 수술하자.

민수와 지영은 한동안 가위, 핀셋, 주사기 등을 이용해 인형의 몸 여기저기를 꼬집고 누르고 찌른다.

(관찰, 2011. 7. 5, 3회 관찰)

<에피소드 12>

연구자 : 너희들이 인형들을 계속하여 찌르고 누르고 하니가 인형들이 아파서 울고 싶다고 선생님에게 말을 했어요.

지영 : (잠시 멈췄던 후 머신이를 안아준다)
민수 : (멈추고 인형을 한 번 쳐다본 후 청진기를 꺼내 인형들을 진찰한다)

연구자 : 인형들이 아프지 않게 달래주세요.
연구자 : (지영이가 머신이를 안아 토닥일 때) 머신아, 많이 아팠지? 울지마. 이제 안할게
지영 : 울지마, 이제 안할게.

(2011. 7. 5, 3회 관찰)

<에피소드 11>에서와 같이 관찰1, 2회에 인형은 유아들에게 마음대로 찌르고 누르고 때릴 수 자신들과 무관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에피소드 12>에서와 같이 연구자가 인형의 마음을 유아들에게 전달하자 이내 공격적 행동을 멈추고 지영이는 달래주려 안아주는 행동을 보이고 민수는 다른 놀이로 전환한다. 이러한 슬픔에 대한 정서인식과 표현행동에 대한 유아들의 반응은 관찰5, 6회에 가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에피소드 13>

민수 : (자신의 인형의 돌리다가 지영의 인형을 빼앗아 간다).

지영 : 쥐~애기 아파. 쥐~.

연구자 : 민수야, 애기가 아프데. 지영이에게 돌려주었으면 좋겠어요.

민수 : (지영이 앞에 떨어드린다)

지영 : (얼른 주워 안으며) 많이 아팠지? 울지마. 내가 민수 때찌해줄게.

민수 : (지영의 모습을 지켜보다가 예뻐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옷을 갈아 입혀준다)

(2011. 7. 12, 5회 관찰)

<에피소드 13>은 지영이가 인형의 아픔에 대해 슬퍼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민수는 지영이만큼 적극적으로 인형의 아픔을 느끼고 위로해주는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공격적 성향이 강한 민수의 행동특성상 공격적 행동을 멈추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쌓이게 되는 인형과의 정서적인 유대관계와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을 말로 전달해 주는 성인의 안내가 유아들의 슬픔 정서인식과 표현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시사한다.

2) 무덤덤함에서 헤어질 때 눈물나는 선생님이

연구참여 유아들이 연구자를 처음 만났을 때, 일반유아들이 낯선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흔히

갖기 쉬운 정서들 예를 들면, 낯설음, 두려움, 호기심, 설렘 등의 어떠한 정서도 보이지 않았다. <에피소드 14>에 처음 연구자를 대했던 유아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에피소드 14>

연구자로서 아이들을 처음 만났다. 오늘 가장 인상적인 것은 유아들이 나에게 보여준 태도였다. 보통의 아이들과 달리 나를 거부하거나 경계하지 않았으며, ‘왜 왔는지’, ‘누구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 등에 관련된 질문도 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신체적 접촉이나 친근한 말을 하거나 반기는 기색도 없었다. 마치 늘 이런 일이 있어왔다는 듯이 초월의 눈빛으로 모든 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았다. 만나고 헤어질 때의 인사도 형식적인, 그래야 착한 어린이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는 듯이 뭔가 기계적인 느낌? 긍정이든 부정이든 어떠한 감정도 없는 느낌일까….

(2011. 6. 28, 1회 관찰시 연구자 참여노트)

이후 계속되는 놀이를 통해 유아들과 연구자 간에 관계가 형성되어 가면서 연구자에 대한 유아들의 정서인식과 표현행동은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에피소드 15>

연구자 : (간식을 먹는 민수, 지영이에게) 지금 너희들이 먹고 있는 간식은 누가 먹고 싶어 하던 것일까?
 민수 : (잠시 먹던 것을 멈추고 연구자의 얼굴을 보며 빙그레 웃는다).
 연구자 : 그래. 선생님이 머신이와 예뻐 생일날 민수가 먹고 싶다고 했던 케이크 를 기억해서 오늘 가져왔어. 선생님이 민수가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해서 가져오니 기분이 어떠니?
 민수 : 좋아요.
 연구자 : 다음 주에는 선생님이 간식으로 또 뭘 가져올까?
 민수 : 딸기요.
 지영 : 바나나요.
 연구자 : 지금은 딸기가 나오지 않는 계절이라 구하기가 어려워. 민수야, 괜찮으면 바나나로 정하면 어떨까?
 민수 : (방긋이 웃으며)네

연구자 : 지영이도 괜찮겠니?

지영 : (방긋이 웃으며)네.

(2011. 7. 5, 3회 관찰)

<에피소드 16>

연구자 : 너희들이 이야기한대로 점토를 가져왔어. 선생님이 너희들을 말을 기억 해서 가지고 오니 기분이 어떠니?
 (지난 시간에 생일축하에서 칼라믹스로 음식 만든 것이 재미있었다고 두 유아가 다시 한 번 가져와 달라고 제안하였다.)
 민수, 지영 : (환하게 웃으며) 좋아요.

(2011. 7. 7, 4회 관찰)

<에피소드 15, 16>를 보면 연구자가 유아들과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유아들의 말을 기억해서 다음 활동에 반영하였으며 유아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유아들의 의견을 물으며 이를 존중하려는 태도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관계형성의 노력을 토대로 관찰 마지막에 연구자와 헤어짐을 슬퍼하는 유아들의 행동이 나타났다.

<에피소드 17>

연구자 : 애들아, 오늘은 조금 특별한 날이야. 지금까지는 헤어졌다가 일곱 밤 자고 다시 만났지만 오늘은 헤어지면 너희들과 다시 만나기 어려울 거야.
 지영 : 왜요?
 연구자 : 이제 선생님은 학교로 돌아가서 언니오빠들을 가르쳐야 하거든
 민수 : 그럼 안와요?
 연구자 : 다시 온다고 해도 많이 지나야 올 것 같아.
 민수, 지영 : (연구자를 바라보며 표정이 굳어진다)

(중 략)

연구자 : (몸을 숙여 놀이실을 나가는 유아들을 안아주며)민수야, 건강하게 잘 지 내!
 민수 : (연구자를 안으며) 안녕히 가세요.
 지영 : (민수와 같이 연구자를 안으며)가지 마요.
 연구자 : 선생님이 안 갔으면 좋겠구나. 그런데 어찌지 언니오빠들도 선생님을 기 다려서.
 지영 : (연구자의 목에 매달리며) 가지 마요.

민수 : (가지 않고 옆에서 지영이의 행동을 지켜 보고 있다)
 연구자 : (지영이를 토닥여준다)
 지영 : (눈물을 글썽이며) 또 와야 돼요.
 (2011. 7. 14, 6회 관찰)

<에피소드 17>에서 보여준 유아들의 반응은 처음 유아들의 반응과 살펴보면 매우 큰 변화라 할 수 있다. 만남과 헤어짐의 정서적 경험에서 어떠한 정서도 표현하지 않았던 유아들이 헤어짐에 슬픈 정서를 느끼고 이를 말로 표현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유아들의 정서표현 행동변화에는 유아들을 존중하고 이들의 생각과 제안을 받아들여려는 성인의 태도가 영향을 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4세 시설보호유아의 ‘화’ 정서 인식 및 표현 행동의 변화과정

4세 시설보호유아들의 화 정서인식 및 표현행동에서의 변화는 화 정서를 인식하는 방법에서 나타났으며, 인형매체 역할놀이의 전반에 걸쳐 화를 경험하고 이를 조절하려는 시도가 일어났다. 특히 화 정서를 조절하는 행동은 연구자의 설명과 지도를 통해 변화가 일어났다.

1) 그냥 화난 얼굴에서 눈썹과 눈이 올라가는 화난 얼굴로

1차 관찰시에 유아들은 화난 얼굴표정카드를 보고 화가 났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어려워하였다. 이는 연구참여 유아들이 다른 사람의 정서를 이해하기 위해 얼굴표정과 행동을 참조(이옥임·주봉관, 2006)하기 어려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에피소드 18>
 연구자 : (화난 얼굴표정카드를 보여주며)이 아

이는 지금 기분이 어떨까?
 지영 : (얼굴을 찡그리며)이렇게 이렇게
 연구자 : (얼굴을 찡그리며) 그래, 이렇게 이렇게.
 이번에는 이 아이의 기분이 어떨지 말로 한번 해볼까?
 민수 : 화났어요.
 연구자 : 그래, 화가 났구나. 민수는 이 아이가 화가 났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니?
 민수 : (말이 없이 연구자를 쳐다보기만 한다)
 연구자 : 지영이는?
 지영 : 그냥 화가 났어요.
 (2011. 6. 28, 1회 관찰)

<에피소드 18>은 관찰 초기의 유아들이 얼굴 표정을 참조하여 화 정서를 인식해야 함을 이해하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후 유아들의 화 정서 인식과 표현행동은 인형 매체 역할놀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정서적 경험을 해결해나가면서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하였으며, 관찰 마지막에 다른 사람의 정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얼굴표정을 참조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이에 대한 사례는 <에피소드 19>에 나타나있다.

<에피소드 19>
 연구자 : (화난 얼굴표정카드를 보여주며)이 아이는 지금 기분이 어떨까?
 지영 : 화났어요.
 연구자 : 이 아이가 화가 났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니?
 민수 : 눈썹이 올라가고 눈이 올라갔어요.
 연구자 : 그렇구나. 이 아이는 왜 화가 났을까?
 지영 : 친구가 장난감 뺏았어요.
 연구자 : 너도 이 아이처럼 화가 날 때가 있지? 언제 화가 나니?
 지영 : 언니들이 내 목걸이 가져가 부셔 버렸을 때요.
 연구자 : 정말 속상했겠다.
 (2011. 7. 14, 6회 관찰)

2) 무대처와 뺏기에서 “내 꺼야”, “좀 줘”로

<에피소드 20>
 유아들이 인형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칼라믹

스로 음식을 만들고 있다.
 민수 : (지영이가 잠깐 내려놓은 칼을 재빨리 가져간다)
 지영 : (잠시 민수를 보더니 다시 칼라믹스를 바닥에 굴려 음식 만드는 일에 몰두한다)
 (중 략)
 민수 : (인형을 손을 쥐고 지영의 음식그릇을 아무말없이 가져간다)
 지영 : 야~
 민수 : (못들은 척 지영의 음식그릇과 인형을 가지고 지영과 거리가 있는 책상 끝으로 가서 앉는다.)
 지영 : (민수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다른 그릇에 있는 칼라믹스를 꺼내 다시 조물락 거린다.

(2011. 6. 30, 2회 관찰)

<에피소드 20>에서와 같이 민수는 놀잇감, 가위, 풀 등을 나누어 써야 할 때 무조건 빼앗은 행동을 보였으며, 지영이는 이에 대처하지 않는 행동을 보였다. 이러한 상호보완적인 행동양상 때문에 관찰 1, 2회에는 유아들 간에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빼앗는 행동에 대한 연구자의 중재가 계속 반복하여 이루어지고, 해야 하는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에 대한 설명과 지도가 이어지자 지영이의 입에서 “내꺼야”라는 말과 민수의 입에서 “빌려줘”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에피소드 21>
 민수 : (지영이의 가위를 말도 없이 가져간다)
 지영 : (빼앗으며) **내꺼야.**
 민수 : (뺏기지 않으려고 가위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난다)
 연구자 : 민수야, 지영이의 얼굴을 보렴. 지금 지영이의 기분이 어떤 것 같니?
 민수 :
 연구자 : 지영이의 눈썹과 눈이 올라가고 입을 삐죽거리고 있네. 지금 지영이의 기분이 어떤 것 같니?
 민수 : 화났어요.
 연구자 : (민수에게서 가위를 받으며) 민수야, 지영이는 민수가 말도 없이 가위를 가져가 버

려서 속상하대. 지영이에게 ‘가위 좀 줘’ 라고 이야기 해 볼까?
 민수 : **가위 좀 줘**
 지영 : (가위를 빌려준다)
 (중 략)
 민수 : (지영이가 간식으로 나온 요구르트를 다 먹지 않고 책상위에 두고 있자 슬쩍 가져가 자기 앞에 놓는다).
 지영 : 안 돼. 내꺼야.
 민수 : (연구자를 쳐다보며) 지영아 좀 줘?
 지영 : (주춤하더니 말없이 고개만 끄덕인다)
 연구자 : 지영이 배부르니? 민수에게 요구르트를 줘도 괜찮겠니?
 지영 : (고개를 끄덕이며) 네!
 연구자 : 민수가 “나 좀 줘?”라고 말로 이야기하니 지영이가 주는구나!

(2011. 7. 12, 5회 관찰)

<에피소드 21>를 보면 연구자는 민수가 지영이의 얼굴을 보고 지영이의 기분이 어떨지 생각해보도록 도왔으며, 친구가 쓰고 있는 물건이 쓰고 싶을 때 해야 하는 행동과 말을 직접적으로 지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민수는 갖고 싶은 것이 있을 때 말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익히고 이를 적용하려고 하였다.

4. 4세 시설보호유아의 ‘놀람’ 정서 인식 및 표현행동의 변화과정

다양한 정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할놀이 주제를 조절하여 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4세 시설보호유아들의 놀람 정서는 연구참여 유아들이 가장 인식하기 어려워하는 정서였으며, 연구참여 유아들의 놀람 정서의 인식은 공룡의 세계로 떠나는 주제의 역할극에 한정되어 나타났다.

- 1) 모르는 얼굴에서 눈이 커지고 동그래지고 놀란 얼굴로
 ‘공룡의 세계로 떠나요’ 주제의 역할놀이 초반에 유아들은 놀란 얼굴을 찾고 놀란 얼굴표정

을 지어 보일 수는 있었지만 다른 사람의 표정에서 놀람 정서를 인식하는 방법과 놀람 정서를 표현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이는 <에피소드 22>에 제시되어 있다.

<에피소드 22>

연구자 : 만약에 공룡이 뒤에서 갑자기 나타난다면 우리의 얼굴은 어떻게 될까?

민수 : (눈을 동그랗게 뜨고)이렇게 이렇게요.

연구자 : 그렇구나! 지영이도 한 번 보여줄 수 있겠나?

지영 : (눈을 동그랗게 뜬다)

연구자 : 이번에는 이 얼굴카드에서 공룡이 뒤에서 나타났을 때 나올 수 있는 얼굴을 찾아줄래?

민수, 지영 : (놀란 얼굴을 손가락으로 지적한다)

연구자 : (놀란 얼굴을 보여주며) 그럼 이 아이의 기분을 말로 표현할 수 있겠나?

지영 : …….

민수 : (연구자가 바라보자)몰라요.

(2011. 7. 7, 4회 관찰초반)

다른 사람의 표정에서 놀람 정서를 인식하는 방법과 놀람 정서의 언어적 표현은 4회 후반에 오늘의 놀이를 회상하면서 “눈이 커졌어요”, “깜짝 놀라요”와 같이 간단하게 기술되었다. 이는 <에피소드 23>에 나타나있다.

<에피소드 23>

연구자 : 오늘은 애기와 예뻐와 함께 공룡의 세계로 떠나보았어요. 만나기 싫은 가장 무서운 공룡은 무엇이었니?

민수 : (티라노 공룡모형을 들며) 이거요.

연구자 : 그럼 티라노가 민수의 뒤를 살금살금 쫓아와서 어깨를 친다면 어떻게 될까?

민수 : **깜짝 놀라요.**

지영 : 깜작이야 그래요.

연구자 : (얼굴카드를 제시하며)그럼 민수와 같이 깜짝 놀란 얼굴을 한 친구를 찾아줄래?

민수, 지영 : (모두 놀란 얼굴을 지적한다)

연구자 : 어떻게 이 그림이 놀란 얼굴인지 알았나?

지영 : (민수의 얼굴을 보고) **눈이 커졌어요.**

(2011. 7. 7, 4회 관찰후반)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시설보호유아의 정서발달을 지원하는 개입프로그램 개발 탐색에 목적을 두며, 정서인식과 표현행동이 늘어나는 만 4세 시설보호유아들을 대상으로 6회의 인형매체 역할놀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 속에서 기쁨, 슬픔, 화남, 놀람의 기본정서를 어떻게 인식하고 표현해 가는지 탐색하였다. 연구를 위해 A아동생활양육 시설에 입소중인 만 4세아 두 명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고, 다양한 주제의 인형매체 역할놀이를 진행하면서 그들의 행동과 말을 관찰하고 면접하였다. 이에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궁극적 목적인 시설보호유아의 정서발달 지원을 위한 개입프로그램 개발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시설보호유아들이 기쁨의 긍정적인 정서를 가장 잘 인식하고 표현하였다는 결과는(황의명·박찬옥, 1999) 기쁨에 대한 정서인식이 다른 정서의 정서인식보다 더 어린 시기에 발달하는 능력이라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며(권덕수, 1997), 시설보호아동의 취약하고 결합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부정적인 정서측면을 강조해온 선행연구의 제한점을 지적하고 시설보호유아의 정서를 부정적 정서변인에 국한하지 않고, 긍정적·부정적 정서를 통합적으로 포함해 통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 문지윤과 임정하(2011)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따라서 시설보호유아의 부정적 정서를 보고한 선행연구를 기초로 시설보호유아의 부정적 정서 조절을 도울 수 있는 개입프로그램 개발연구뿐만 아니라 시설보호유아들의 긍정적인 정서에 대한 연구와 이를 함양시킬 수 있는 개입프로그램개발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4세 시설보호유아들의 슬픔 정서인식과 표현행동에서의 긍정적인 변화가 관찰기관 동안 형성된 연구자와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서서히 나타났다는 연구결과는 보육사와의 애착의 질과 시설가족의 사회적 지지 등이 시설보호유아의 정서발달에 영향을 주는 중요 변인임을 보고한 연구와 일치한다(김성애·박성연, 2009; 문지윤·임정하, 2011). 시설보호유아가 일반유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정적 정서표현에 노출될 기회가 많기 때문에 슬픔, 분노,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성미영, 2006) 이러한 부정적 정서성은 시설에서의 사회적 지지를 통해 개선될 수 있다면, 시설보호유아를 양육해야 하는 보육사와 시설보호유아간의 정서적 유대관계 형성을 돕고 시설보호유아를 긍정적으로 지지할 수 있도록 돕는 개입프로그램 개발이 더욱 절실히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셋째, 4세 시설보호유아들이 화 정서를 인식하고 표현하는 행동이 인형매체 역할놀이의 전반에 걸쳐 나타났다는 것과 연구자의 안내와 지도를 통해 화 정서 조절의 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는 연구결과는 시설보호유아의 사회정서발달을 돕는 개입프로그램개발의 방향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즉 화 정서는 유아기에 빈번한 정서이며 유아기에 화 정서를 인식하고 조절하는 교육이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유아정서발달에 따라 화를 조절하는 것을 배우기 전에 자신과 다른 사람의 화 정서를 읽을 수 있는 정서인식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하며,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양육자의 친절한 설명과 반복적인 지도가 필요하다(박찬옥·지성애, 1996). 이러한 유아정서발달에 기초하여 시설보호유아의 사회정서발달을 지원하는 개입프로그램이 개발되었을 때 교육의 효과가 클 것이다.

넷째, 4세 시설보호유아들의 놀람 정서는 연구참여 유아들이 가장 인식하기 어려워하는 정서였다는 연구결과는 5, 7세 시설보호유아를 대상으로 한 정서연구(권세은, 2002)와 일치하며 일반유아를 대상으로 한 정서연구(황의명·박찬옥, 1999; Borke, 1971)와도 일치한다. 이는 놀람 정서가 유아들이 인식하기 어려운 중립적 정서라는 것에 기인할 수 있다(권덕수, 1997). 따라서 놀람 정서의 인식은 연령에 따라 증가함으로 시설보호유아의 정서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개입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각별한 주의를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시설에서의 교육적 개입에 대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최근 시설보호아동의 주요 입소 사유가 가족해체, 경제적 문제, 부부불화 등으로 나타나며 이에 따른 불안정한 양육자와의 애착이 아동의 심리·정서적 문제의 주요원인이 된다는 것을 감안할 때(유안진·민하영·권기남, 2001) 시설에서의 조기 개입과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며, 그 교육적 개입은 시설보호유아가 성장기에 있는 유아라는 점과 시설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반영된 것이어야 할 것이다. 즉 일반적 유아정서발달의 특성과 시설유아의 발달 특성이 모두 포함된 개입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시설보호유아의 정서발달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문지윤·임정하, 2011)에서 지적되었듯이 시설보호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모두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자기평가와 언어적 표현이 유창하지 않은 유아들에게 적합한 연구방법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시설보호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양적, 질적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시설보호유아의 정서발달에 대한 연구

는 결핍만이 강조되어 시설보호유아를 위한 개입이 발달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루어지기 보다는 부정적 측면의 한 부분에 치우쳐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시설보호유아의 전인적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긍정적 정서를 함양시키는 내용이 포함되는 개입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유아들이 시설에 있던 가정에 있던 그들에게는 특정시기동안 이루어야 하는 발달과업이 있으며 그것을 이루어야만 정상적인 발달을 지속할 수 있다. 따라서 각 발달연령에서 성취해야 할 정서발달과업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각 유아의 상황을 고려한 발달에 적합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시설보호유아의 정서발달을 돕기 위한 개입이 주로 정서조절에 맞춰져 있는데, 유아정서발달이론에 의하면 정서조절에 앞서 기본정서에 대한 인식이 이루어져야 그 다음 발달단계로 자연스럽게 이행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시설보호유아의 정서인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유아의 정서발달을 충분히 반영하는 시설보호유아 개입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는 정서발달을 기초로 자신과 타인에 대한 정서를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하는 4세를 대상으로 그들의 정서발달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연령, 입소시기, 적응양상 등 다양한 변인에 따른 정서변화양상을 살펴보는 후속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Han, J. H., & Lee, J. S. (2007). Material for Inner Control by Normal Children and Children Under Facilities, Relationship Between Stress Solving

Behavior and Depression. *Child Journal*, 28(6), 155-168.

Hong, S. H., & Kim, K. H. (2005). Research on Children Under Facility and Emotional Intelligence of Normal Children and Anxiety for Other People. *Child Rights Research*, 9(2), 277-296.

Hwang, E. M., & Park, C. O. (1999). *Sentiment Education Program for Infants*. Seoul : Yang Seo Won.

Kim, G. H. (2000). Research on Emotional Safety Within Teenagers in Orphanage. Ehwa Women's College Graduate School Master's Thesis.

Kim, I. S. (1992). Research on Child Emotions Through Evidence of Facial Expression and 상화. JoongAng College Education Graduate School Master's Thesis

Kim, S. A., & Park, S. Y. (2009). Attachment of Infant Rearer, Relationship Between Infant's Emotion Controlling Ability and Aggression : Comparison Between Normal Infant and Infant Under Facility. *Child Journal*, 30(1), 43-57,

Korea Baldolf Doll Research Association (2008). [http : //www.waldnspiel.org/](http://www.waldnspiel.org/)

Kwon, D. S. (1997). Understanding Children's Emotions in Single Sentiment and Multiple Sentiment Situations, Intensity of Feelings and Expressing Emotions. JoongA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Master's Thesis.

Kwon, S. E. (2002). Social Skills Belonging to Normal Children and Children under Facilities, Comparison Between Abilities to View Feelings and Acknowledging Self Capabilities. Seoul University Graduate School Master's Thesis.

Lee, K. S. (1994). Effect of Role Play on Improving Aggressive Behavioral Disordered Children. *Special Education United Assembly*.

Lee, O. I. (1997). Understanding Child Anger Emotions and Research on Controlling Anger Emotions. Joongang College Graduate School Master's

- Thesis.
- Lee, Y. D. (1995). Human Condition to Live in a Globalizing Age. *Korea Education Development Center Book*, 98.
-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03). Research on Method to Improve Life of Infants Under Child Welfare Facilities. *Policy Report*, 2003-89.
- Moon, J. Y., & Im, J. H. (2011). Tendency of Children Under Facilities and Social Support and Relationship to Positive & Negative Emotions. *Daehan Family Journal*, 49(3), 79-86.
- Moon, Y. L. (1996). Meaning and Importance of Emotional Intelligence. Searching for Mature Emotional Education : Infant Education. *Korea Children Scholarship Association*.
- Park, C. O., & Ji, S. A. (1996). *Social Life Education of Infants*. Seoul : Ehwa Women's College Publishing.
- Park, J. S. (2007). Effect of Role Play on Children's (Under Facilities) Depression, Aggression, Distraction. Hanyang College Graduate School Master's Thesis.
- Park, M. K. (2006). Emotional Intelligence of Children Under Normal Families and Facilities, Relationship Between Social Abilities and School Satisfaction. Catholic University Education Graduate School Master's Thesis.
- Sung, M. Y. (2006). Internalization and Externalization of Behavioral Problems and Emotional Development of Children Under Facilities. *Korea Life Science Journal*, 15(1), 17-29.
- Yoo, A. J., Min, H. Y., & Kwon, K. N. (2001). Self Identity of Children Under Facilities and Their Psychology and Social Adaptation : Centered on School Age Children and Teenagers. *Korea Children Welfare Studies*, 39(2), 135-149.

2011년 10월 31일 투고, 2012년 2월 7일 수정
2012년 2월 10일 채택